

광주비엔날레 20년 '새 국면'

이용우 대표이사 사의 표명... 변화·개혁 직면 문화계 "이사진 동반 사퇴...비대위 구성" 요구 경영진단위 구성 속도...조직 대대적 손질 예상 디자인비엔날레·광주폴리 프로젝트도 영향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전시 유보 논란으로 인해 수렁에 빠진 광주비엔날레가 이용우 대표이사의 전격 사퇴 표명과 함께 새 국면을 맞았다.

지역문화계는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단 고위관계자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화를 해왔었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는 18일 재단 사무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 제의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월4일 열리는 개막식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번 사태로 광주비엔날레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작가의 작품은 이번 특별전 전시의 핵심 주제인 '광주정신'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제가 광주비엔날레 경영인이 아닌 미술인, 미술비평가의 입장에 있었다면 전시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이사의 사퇴 표명으로 광주비엔날레는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이사가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등 전권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 광주비엔날레 이사를 거쳐 2008년 상임부이사장을 지낸 뒤 지난 2012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변화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대표이사의 사퇴로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재단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외쳐온 '변화'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이사의 사퇴 표명에도 광주미술협회, 광주전업미술가협회,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광주비엔날레 재단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 장기집권해온 이용우 대표이사는 공식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광주비엔날레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광주시에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선 6기 광주시장 인수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힌 '광주비엔날레 경영진단 및 정책 실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 및 조직 운영



광주 미술인 50여명이 18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우 대표이사 즉각 사퇴 등 비엔날레재단의 개혁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연합뉴스

방향에 대대적인 손질 작업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이 그동안의 광주비엔날레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와 이사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에 따라 향후 광주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2주 앞으로 다가온 2014광주비엔날레 본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국비 축소다. 국비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이번 홍성담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 열린 '대토론회 기자회견'과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는 공공기금을 받는 곳이다. 국비 문제는 현실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존재문제로, 굉장히 절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재단 간부가 "문화부에서 사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온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재단 내부는 물론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청주 매개공간 이드-함평 잠월미술관 교류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비영리 전시공간 '매개공간 이드'와 사립미술관인 함평 잠월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이 잠월미술관에서 함께 전시를 연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공존하는 차이'(Coexisting Differences)로 '이드'에서는 성정원·이세력·채효진·황희정씨가 잠월미술관에서는 김승용·김정남·박태규씨가 참여한다.



김정남 작 'flower frog'

한 공간에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공존'이라고 부르고, 서로 같이 아니한 상태를 '차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공존'과 '차이'는 서로 다른 성질을 지녔고, 전혀 어울릴 법하지 않는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두 전시 공간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공존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설치, 평면,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다른 성격의 전시 비영리 전시공간 '매개공간 이드'와 사립미술관 '잠월미술관'의 교류전으로, 두 공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입주작가 개인의 작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공존하는 주제들이 발견된다. 문의 070-8872-6718.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국수 먹고 싶다...아픔 나누고 싶다

'비타포엠' 22일 이상국 초청 시 낭송회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중)

국수는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님 세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이다. 삶 속에서 마음을 상하거나 허허로울 때 먹었던 한 그릇의 국수는 입맛과 생기를 되찾아 주는 발명이었다. '큰 잔치집 같은 세상' 뒤안길에는 울고 싶은 사람, 허전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과 국수를 먹고 싶다는 것은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비타포엠'(회장 김완)이 제3차 비타포엠 시낭송회를 갖는다. 오는 22일(오후7시~9시) 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시낭송회에서는 '국수가 먹고 싶다'의 이상국(사진) 시인을 초청, 자작시 낭송을 비롯 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상국 시인은 1976년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우리는 읍으로 간다', '집은 따뜻하다', '뽕을 적시다' 등을 펴냈고 '박재삼 문학상', '백석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6664-9490. /박성천기자skypark@

"예술인의 협업 통해 생산적 비엔날레 돼야"

이용우 대표이사

이용우(사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18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지난 세월 광주시민으로,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생자로 살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광주비엔날레는 단순히 미술 전시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

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문화적 생물"이라며 "시민들은 광주비엔날레가 전시회 이상의 인문학적, 사회학적 다양한 중개자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문화의 중심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문화적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에 대한 '검열'에 대해서는 '경영인'과 '미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이 대표이사는 "검열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대중적 여론은 표현의 내용이나 과정에 관심 없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향이 보여, 결과는 예술가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광주비엔날레에서 이번 사태를 시발로 이런 논의에 대한 '명답'을 찾기 위해 대토

론회를 제안했다"며 "경영인의 입장에서 즉각 전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답으로 수정하고 민중으로 설명했다면 거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미래는 지역 특정 예술가들이나 소수 전문가들의 손에만 맡겨져서는 곤란하다"며 "열정과 비방하기 보다는 예술인들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적 비엔날레를 토론했다"며 "협업을 부탁한다. 프로야구는 선수들의 것이기도 하고 구단주의 소속이지만 야구를 사랑하고 가꾸는 관객들의 것이란 표현이 맞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전북도립미술관장에 전남대 장석원 교수

전북도립미술관장에 전남대 장석원(62·사진) 교수가 임명됐다. 도는 1차와 2차 면접 등을 통해 앞으로 2년간 도립미술관을 이끌고 나갈 책임자로 장 교수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장 교수가 전략적 리더십과 조직관리 및 전문가적 능력 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른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교과와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장 교수는 종합문화예술잡지인 공간사 편집장을 거쳐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전시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길이 ~5m, 두께 100mm

통원목가구

광주 최초판매 (가정용·업소용·인테리어)

홍스페이스

1899-0240

www.hong79.com